강 령
聖潔 · 希望 · 自由

성결신문

중생 · 성결 · 신유 · 재림

성결신문은 예수교대한성결교회의 기관지로서 한국교회를 대표하는 언론을 지향합니다. 1907년부터 이어온 성결교회의 정체성을 확립하고, 국내외 성결가족들의 교류의 장을 마련하여 개인 신앙성장과 교단부흥을 선도하는 빛과 소금의 사명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http://www.sknews.org / 대표전화 : 070-7132-0091~5 SUNGKYUL NEWS 2026년 7월 7일 화요일 제634호

국선위, '하나님 나라 비전 중심의 교회' 성장 전략 제시

교회 본질 회복과 하나님 나라 비전실천 방안 모색

국내선교위원회(위원장 위성섭 목사 · 이하 국선위) 산하 교회성장분과(분과장 김덕정 목사)가 '하나님 나라 비전으로 성장하는 교회 세미나'를 열고, 교회의 본질 회복과 건강한 성장 전략을 모색하는 시간을 가졌다.

세미나는 지난달 29일부터 30일까지 1박 2일간의 일정으로 인천 부평구 동광제일교회에서 개최됐다. 세미나에는 40명의 목회자가 참석했다.

이번 세미나는 참가자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위해 모든 일정을 마친 참석자에게는 참가비 전액을 환급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예성 국내선교위원회는 이번 세미나를 통해 교회의 목적과 방향을 분명히 세우고, 하나님 나라 비전을 중심으로 한 교회 사역과 성장 전략을 구체적으로 수립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세미나에서는 명확한 교회의 목적과 방향 설정, 효과적인 교회 성장 전략 수립, 하나님 나라 비전 중심의 교회 계획 수립 등을 핵심 과제로 제시했다. 또한 하나님 나라 비전을 품은 교회, 하나님 나라를 실현하는 소그룹 사역, 말씀묵상 중심의 목회와 설교, 하나님 나라 리더십 등 실제 목회 현장에 적용할 수 있는 다양한 사례와 실천 방안도 함께 소개됐다.

강사로는 '내가 선 곳, 거룩한 땅'의 저자인 엄기영 목사가 초청됐다. 엄 목사는 하나님 나라의 관점에서 교회의 사명과 목회의 방향성을 제시하며 참석자들과 질의응답과 토론을 통해 현장 목회의 다양한 과제를 함께 나눴다.

첫날에는 등록과 오리엔테이션을 시작으로 두 차례의 강의와 질의응답, 소그룹 나눔이 진행됐으며, 저녁 시간에도 강의와 토론을 이어가며 참석자들이 각자의 목회 경험과 고민을 공유했다.

둘째 날에는 세 번째 강의와 질의응답, 소그룹 나눔에 이어 전체 토론이 진행됐다. 참석자들은 각 교회에서 적용할 수 있는 구체적인 사역 계획을 발표하고 의견을 나누며 지역교회에 맞는 실천 방안을 함께 모색했다.

국선위 위원장 위성섭 목사는 "이번 세미나는 교회의 본질을 다시 확인하고 하나님 나라 비전을 목회 현장에 어떻게 적용할 것인지를 함께 고민하는 시간이었다"며 "참석한 목회자들이 각 교회에서 건강한 공동체를 세우고 지속 가능한 성장을 이루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영원한 스승이신 손택구 목사님 그립습니다"

故 손택구 목사 15주기 추모예배… 세미나도 함께 가져

故 손택구 목사 15주기 추모예배가 지난 30일 성결대학교 아립국제회의실에서 드려졌다. 우성기념사업회(회장 문정민 목사) 주관으로 드려진 이날 추모예배는 고인의 후학들을 비롯한 교단 내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김상인 목사의 사회로 시작된 추모예배는 최윤영 목사의 기도 후 총회장 이종만 목사가 '살피고 배우라'라는 제목으로 설교했다. 이 총회장은 "고인의 헌신과 섬김이 있었기에 오늘 우리가 유지되고 존재할 수 있게 되었다. 고인과 스승들의 삶을 본 받아서 우리의 삶으로 성결의 복음을 증명해 주는 후학들이 되어주기 바란다" 말하고 "고인의 육체는 우리 곁을 떠났지만 그의 학문적 교훈은 우리에게 많은 것을 주셨다. 그의 믿음대로 자랑스런 후배들이 되자"고 설교했다.

오성택 목사의 축도로 예배를 마쳤다.

이날 신광교회 김성목 목사는 추모사를 통해 어린 시절 부친을 통해 접했던 고인의 모습을 회상하고 부친과 함께한 시간들을 이야기했다. 그는 "전하셨던 말씀대로 살아가셨던 참 성결스러운 목사님 이셨다"며 "성결의 복음으로 많은 영혼을 살릴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성결대 총장 정희석 장로도 격려사를 통해 "고인의 희생정신으로 학교가 유지되고 성장해왔다. 장학금으로 큰 격려와 희망이 되었고, 기념사업회에도 하나님의 큰 뜻이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장학금 수여식도 있었다. 예성우성장학회를 통해 총회성결교신학교 6명과 성결교신대원 원우 5명에게 각각 장학금이 전달됐다.

이어진 세미나는 임흥근 목사가 나서서 '우성 손택구 목사의 성결 함의'를 주제로 강의가 이어졌다. 임 목사는 "손택구 목사의 성결 신학이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 사역과 온전한 성화를 중심으로 체계화됐으며, 오늘날에도 교단의 신학적 정체성을 이해하는 데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고 설명했다.

기념사업회 회장 문정민 목사는 "우리 모두의 영원한 스승인 故 손택구 목사님을 기리기 위해 우리는 사중복음의 증인으로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사명임을 명심해야 된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추모예배 후에는 손택구 목사의 주요 저서인 《구원의 사중국면》《우성 손택구 목사 인물기》《성결의 삶과 길》《성결의 글》등이 소개됐다. 참석자들은 손 목사가 웨슬리안 성결 신학을 바탕으로 초기 · 중간 · 종국 · 최후 구원으로 이어지는 구원론을 체계적으로 정립했으며, 성결을 신구약 성경 전체를 관통하는 핵심 사상으로 제시한 업적을 높이 평가했다.

1920년 강원도 철원에서 태어난 故 손택구 목사는 초기 한국성결교회의 부흥 운동을 이끈 손갑종 목사의 대를 이어 목회자로 헌신했다. 1952년에 해망동성결교회와 1973년에 신광교회를 개척해 성도들에게 청빈과 진실, 체험적 신앙생활을 몸소 보여줬다.

영암골

'2026년 후반기를 시작하며'

7월(July)은 1년 12달 365일의 달력(율리우스력)을 만든 로마 율리우스 카이사르가 태어난 달로, 그의 업적을 기념하기 위해 그 이름 따라 July라 했다.

이런 July(7월)는 한 해의 후반기가 시작되는 해이기도 하다. 일 년을 전 · 후반기 시간으로 구분 지어 매듭지어가는 것은 참으로 다행스러운 일로 여겨진다. 그 매듭을 지을 때마다 잘잘못을 헤아려 더 나은 매듭을 향해 갈 수 있으니 말이다.

스위스의 칼융(Carl Jung)은 인생의 계절을 전반기, 후반기로 나누어 설명했다. 삶의 여정 중 전반기에는 자신의 삶의 영역확장(Expanding)과 뿌리내림(Rooting)의 때라고 했다.

이 과제를 이루어 견고하고 넉넉한 삶을 꾸려가는 이들이 있지만, 많은 사람들은 그렇지 못함으로 삶의 위기를 맞는다. 사별, 사랑과 사업의 실패, 질병, 관계악화, 꿈의 어긋남 등은 심각한 위기의 시간으로, 그것은 삶의 전환점(Turning Point)이 되어 후반기 삶으로 이어진다.

칼융은 후반기 과제를 관계회복(Relationship)과 진정한 자아(Real-Identity)를 찾는 시기라 했다. 하나님과 가족, 그리고 이웃과의 관계회복을 시도하며, 나는 누구이고, 어디서 왔으며, 어떻게 사는 것이 참된 삶일까? 하는 문제들의 답을 찾는 시간으로 '자아를 찾는 때'이다.

이제 시작된 2026년 후반기에 우리의 과제는 무엇인가? 느슨해진 모든 인간관계, 특히 하나님과의 관계회복을 이루어 '영성 깊은 성결인'으로 서가는 후반전의 여정이라면 어떨까?

7월의 첫 주일이 맥추감사 주일인데 기독교 신앙의 핵심은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를 알고 감사하므로 시작된다. 후반기를 시작하면서 '감사 신앙의 회복'을 이룬다면 금상첨화 일 것으로 여겨진다.

"내 고장 칠월은/ 청포도가 익어가는 시절"/ 이라던 이육사 시인의 청포도가 생각나는 칠월. 우리도 그렇게 익어 성숙한 성결인으로 서가는 7월이 되었으면 한다.

清水 ehc3s@hanmail.net

2026 목회자부부 하계수련회

주제 예수 안에 쉼, 성령으로 충만! **일시** 2026. 8. 24(월) ~ 26(수) **장소** 여수 베네치아호텔 https://www.yeosuvenezia.com

전남 여수시 오동도로 61-13(수정동 774-4) ☎ 061-664-0001

대회장 이종만 목사 · 준비위원장 이상문 목사 · 준비부위원장 황제돈 장로 · 운영본부장 권순달 목사 · 진행위원장 강명국 목사 · 운영총무 임태진 목사 · 운영서기 김규식 목사 · 운영회계 박정식 장로 · 운영부회계 김용빈 장로

초대의 글

할렐루야!

주님의 이름으로 문안드립니다.

지 교회와 목회 사역 위에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충만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이번에 저희는 목회자들의 영적 재충전과 쉼, 그리고 사역의 회복을 위하여 목회자 하계수련회를 준비하였습니다. 바쁘고 분주한 목회 현장에서 잠시 멈추어 서서, 주님 앞에서 말씀과 기도로 다시 새 힘을 얻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번 하계수련회는 함께하시는 모든 목회자 한 분 한 분의 귀한 동참을 통해 더욱 풍성해질 것이며, 서로에게 위로와 격려가 되어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경험하는 시간이 될 것을 믿습니다.

부디 귀한 발걸음으로 함께하시어 주님 안에서 참된 쉼과 회복을 누리시는 복된 시간이 되기를 정중히 초대드립니다.

저녁 집회

황성은 목사
오메가교회 담임
비전스테이션 미니스트리 대표
대전성시화 운동본부 부회장

찬양 집회

옹기장이 찬양단

■ 수련회 일정표

	24일 (월)	25일 (화)	26일 (수)
오전		조식(호텔)	조식(호텔)
		〈지방회 별 자유 여행〉	〈폐회예배〉
오후	▶ 등록 및 숙소 배정		내년에 만나요~
	석식		
저녁	〈개회예배〉	〈저녁집회〉 강사 : 황성은 목사(오메가교회)	
	※찬양인도: 목사(사)국찬양단 ※집회: 옹기장이 찬양단	〈기도회〉 인도 : 김형국 목사	

입금: 국민은행 533301-01-164688 / 예금주: 예성총회
※ 개인 : 20만원 / 부부 : 30만원
(자녀 1인당 5만원, 방이 추가되는 동반가족은 1인 10만원, 기타 경비 별도)